

중국 고문헌 고찰을 통해 본 침구학의 기원과 역사

김진국¹, 이소영², 김애정^{3*}

¹경기대학교 대체의학과, ²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매체테라피전공, ³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식품치료전공

The origin and history of acupuncture medicine through a study of ancient Chinese literature

Jin Kook Kim¹, So Young Lee², Ae Jung Kim^{3*}

¹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²Department of Medium Therapy,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Kyonggi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trition Therapy,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침구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문헌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알아보는 데 있다. 먼저 침구학사를 다룬 서적을 기본으로, 기존에 발표된 문헌과 논문을 수집 고찰하였다. 상고시대부터 시작된 침구학은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경험이 누적되고, 진한시대에는 이론적인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양진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는 극심한 전란과 분열 속에서도 의학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졌다. 송·금·원시대는 침구학의 황금기를 맞았고, 명나라시대에는 의학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청나라시대에는 침구학의 성숙기로 접어든다. 신해혁명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에는 중국전통의학학을 국책사업으로 뒷받침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침구학은 더욱 정밀한 과학적 실험과 검증을 거쳐 근거중심의 의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서양의학과의 소통을 통해, 단순한 보완대체의학이 아니라, 전일의학, 통합의학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rganize ancient Chinese literature on acupuncture to evaluate its significance and raise awareness of its history and present status. First, based on books dealing with the history of acupuncture, previously published literature was collected and reviewed. Acupuncture, which originated in ancient times, grew in usage through the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and began to acquire a theoretical framework in the Qin and Han period. In the Jin and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and Sui and Tang eras, the infrastructure for medica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even amid intense wars and conflicts. The golden age of acupuncture was reached in the Song, Jin, and Yuan dynasties, and in the Ming dynasty, this form of medicine was comprehensively organized. Acupuncture as a medical science reached maturity during the Qing dynasty era.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Xinhai Revoluti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as further developed by supporting it as a national project. In this way, acupuncture was established as an evidence-based medicine through more precise scientific experiments and verifica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practitioners of Western medicine, acupuncture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n axis of holistic and integrative medicine and not just remain a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Keywords : Acupuncture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Evidence-based Medicine, Holistic Medicine and Integrative Medicin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orresponding Author : Ae-Jung Kim(Kyonggi Univ.)

email: aj5249@naver.com

Received Octo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November 16,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동양의학의 침법(鍼法)은 금속제의 침을 써서 인체의 일정한 체표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다[1]. 서양의학에서는 침법을 가는 실 모양의 침을 자입하는 치료 기술로서, 현재 통용되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근거 중심 의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던 침 치료를 변환한 것으로 정의한다[2].

침구는 상고시대 중국대륙에서 발원하여 한반도,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의학의 하나로서, 오랜 기간을 통해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일반적으로 침구학의 경우 시술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고가의 진단 및 치료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구한 역사와 특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구학이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했던 기자들에 의해서 외과수술을 하는데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침만 몇 대 꽂아놓고 수술을 하는 장면 등이 알려지면서 서방세계에서 침구학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3].

서양의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침구학을 점차적으로 수용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침의 기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수의 국가에서 침치료를 기존의 치료와 함께 제공하는 보건의료업에서의 침치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2].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침이 임상적으로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증치료효과가 가장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의학계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분야가 통증치료이다. 1997년에 미국 식품 의약 관리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침구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험수가체계에 포함시킨 것도 그 좋은 예이다[3]. 예를 들어 무릎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와 일상관리 요법을 비교한 네트워크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침의 효과는 일상관리요법에 비해 명백하게 높았다[4]. 특히 만성통증의 경우에 침의 효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5].

하지만 침이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양과학적인 지식으로는 경혈과 경락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완전히 입증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동서의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은 철학적이고 주관적이며 총체적인데 비해, 서양의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면을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동양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실험과 검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확대될수록 동서의학의 공통된 부분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3].

거시적인 임상역학(clinical epidemiology)과 생물통계학적 방법을 결합하여 실증지식에 근거한 의학 이상을 통합적으로 구현함을 추구하는 것을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이라 한다. 사실 동양의학의 한 갈래인 침구학 역시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근거중심의학'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엄격한 임상연구와 정밀한 실험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학술적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침구학도 명실상부한 근거중심의학이자 과학의학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6,7].

지금까지 서양에서는 자신들의 의학이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Othodox Medicine)이라고 하고, 자신들 이외의 의학을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혹은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두 단어를 합쳐서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8]. 침구학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의학이 우리가 서양에서 부르는 것과 같은 보완대체의학이 아니라 이른바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근거중심의 의학으로서 그 과학성을 담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구학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침구학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현황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것은 침구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그것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침구학이 근거중심의 의학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동서양 문명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침구의학이 어떻게 기원해서 발전해 왔는가 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명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침구의학이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하며, 기존의 다양한 의학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하는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침구의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제고를 위한 문헌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연구가 궁극적으로 동서의학의 융복합적인 접점을 찾고, 인류의 보건의료의 증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다소라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침구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침구의 중주국인 중국을 비롯한 대만과 한국에서 나온 침구학사 서적을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중국 대륙에서 나온 천신농(Chenxinnong)의 중국침구학과 구어스위(Guoshiyu)의 중국침구사, 대만에서 나온 장위민(Zhaungyumin)의 중국침구발전사, 이재동(1997) 등의 중국침구학사, 그리고 김기욱(2006) 등의 강좌중국의학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발표된 문헌 및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RISS),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L) 국회도서관(NAL) PubMed 등을 통해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상고(上古)시대

상고시대는 인류사적으로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 시대를 포괄한다. 중국의 경우 하(夏)왕조와 상(商)왕조 그리고 서주(西周)시대가 상고시대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침구의학의 중주국인 중국에서 침구가 발원된 침구의학의 기원기라고 볼 수 있다[10].

3.1.1 하(夏)왕조시대 이전(-B.C.1600년경)

이 시대 특기할만한 것은 북경 주구점(周口店) 유적인데, 뼈로 만든 골침(骨針), 뾰족한 돌로 만든 펌석(砭石)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금속제의 침을 발명하기 이전에 사용된 원시적인 형태의 침으로 인정받고 있다[10,11]. 인류가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은 피부를 지져서 치료효과가 유발되는 뜸의 기원과 관련이 깊다[12]. 한편, 이 시기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전설시대로서 삼황오제(三皇五帝)로 불리는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 황제씨(黃帝氏)를 의학의 창시자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전설로 간주 되고 있다[13,14].

3.1.2 상(商)왕조시대(B.C.1600년경-B.C.1046)

상왕조시대는 침구의학이 막 싹을 틔운 맹아(萌芽)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상왕조의 수도인 은허(殷墟)유적에서 발견된 갑골문[15]에는 질병의 종류, 치료방법 등 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이 다수가 발견되었다. 또한 당시 의사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는 무의(巫醫)들은 자신의 고유 영역인 기도, 제사 뿐만 아니라 펌침(砭鍼)과 쑥뜸(艾灸)과 약물도 함께 사용하였다[13].

3.1.3 서주(西周)시대(B.C.1046-B.C.770)

서주시대는 의정(醫政)제도가 확립된 시기였다. 무의(巫醫)와 전문의(專業醫)가 구분되어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였다. ‘주례(周禮)’에는 의관(醫官)의 직분을 의사(醫師), 식의(食醫), 질의(疾醫), 양의(瘍醫), 수의(獸醫)의 5가지로 분류한 기록이 있다. 낙양 서고애(西高崖) 유적지에서 서는 구리로 만든 동침(銅針)이 발견되었으며, 화전현(和田縣) 유적지에서 출토된 ‘공혈주치(孔穴主治)의 잔본(殘本)’에는 4개의 혈자리의 위치 및 주치, 침구 치료에 대한 방법이 기재되어있다[14,15].

3.2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B.C.770-B.C.221)

춘추전국시대는 침구경험이 누적된 시기이다.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좌전(春秋左傳) (B.C.550)에는 ‘맛좋은 것이 약석만 못하다(美疾不如藥石)’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약석(藥石)은 약초와 펌석(砭石)을 의미한다. 또한 ‘뜸으로 고칠 수도 없고 침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며 약으로도 통하지 못합니다(攻之不可, 達之不及, 藥不至焉, 不可爲也)’라는 기록도 있다. 후한시대 경학자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펌(砭)은 돌침으로 병소를 찌르는 것이다(砭, 以石刺病也)’라는 기록이 있다. 한무제 때 사마천이 지은 사기열전(史記列傳)에는 ‘금속침을 갈고 돌침을 갈도록 하여(厲鍼砥石)’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편작(扁鵲)이 당시 제후를 치료하는 고사와 관련이 있다[10].

한편, 중국 남방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의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비단조각으로 만든 서책인 백서(帛書)유물에는 의학과 관련된 기록이 다수 있다. 첫째, ‘족비십일맥구경(足臂十一脈灸經)’에는 각 경맥의 순행부위와 주치증 그리고 침구치료법[16]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음양십일맥구경(陰陽十一脈灸經)은 위의 책과 유사하지만 내용이 더 한층 풍부하다. 셋째,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五官과 등 각종 질병의 치료방법이 백과사전처럼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작자 미상의 황제명당경(黃帝明堂經)은 최초의 침구의학 전문서적으로서, 경락의 유주와 혈자리의 위치 및 주치증상 등의 기록이 있다[17]. 후대 황보밀(皇甫謐)이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을 저술할 때 참고한 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명당공혈침구치요(明堂孔穴鍼灸治要)에는 경혈에 대한 설명과 주치병증에 따른 침구 치료 및 금기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18].

3.3 진·한(秦漢)시대(B.C.221–A.D.265)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후 진나라의 치세는 기원전 221년에서 207년까지 15년인데, 진시황은 분서갱유(焚書坑儒)로 많은 학술서적을 불살랐으나, 의학서적만은 예외여서 의학의 명맥은 보존할 수 있었다. 이후 한나라가 지배한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후 220년까지 4백여 년은 침구의학의 이론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룬 침구학술의 기초확립기라고 평가받는다. 특히 정부 관직 속에 의학과 관련된 관직을 둔 한나라의 의정(醫政) 제도는 후대 정부조직의 모범적인 틀이 되었다[13].

중요 서적으로는 대략 전국시대에서 진한시대에 다수의 저작으로 보이는 황제내경(黃帝內經)[19]이 있다. 침구학의 기초이론에서부터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양생 등을 망라하고 있다. 침구학의 이론과 임상 바탕이 되는 책으로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다[20]. 특히 황제내경에는 침의 모양과 용도에 따라 이를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구침(九鍼)이라고 한다[21].

난경(難經)은 동한(東漢)이전의 저작으로 편작(扁鵲)의 저술로 추정한다. 기경팔맥(奇經八脈), 오수혈(五輸穴), 배유혈(背俞穴), 복모혈(腹募穴), 원혈(原穴), 팔회혈(八會穴), 침자 보사법, 시동병(始動病)과 소생병(所生病)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침구이론을 체계화한 책으로 평가받는다[16,22,23].

황제침구하마경(黃帝鍼灸蝦蟆經)은 작자, 연대 미상의 저술로, 경락의 분포, 침에 대한 금기를 도해(圖解)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 (150–210)은 장중경(張仲景)이 한나라 3백 년 임상경험 총괄한 책이다. 황제내경의 학설을 충실히 발전시키고, 변증론치(辨證論治)의 기초를 세우고, 침구의 응용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24].

3.4 양진남북조(兩晉南北朝)시대(265–581)

양진남북조시대는 극심한 분열의 시기이다. 한(漢)나라가 붕괴하고 삼국시대를 지나 진(晉)이 잠시 전국을 통일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중국은 남북으로 갈라진다. 전란의 연속, 경제불안, 질병만연 등으로 많은 명의들이 출현하고 침구관련 서적도 많이 출간되면서, 침구의학이 정리된 시기로 평가를 받지만 이 역시 전란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이 시기 의학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10].

맥경(脈經)은 왕숙화(王叔和)가 242년 저술한 책으로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론을 심화시키고, 침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등 장부경락과 맥진을 결합하여 침구의 변증론치를 시도한 책으로 평가받는다[25].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은 259년 황보밀(皇甫謐)의 저작으로 모두 12권 128편이다. 주로 장부경락과 맥진이론, 혈자리 위치, 침구취혈, 병인병리와 질병의 증후, 침구의 금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혈자리 총수와 명칭을 확정하고 경락계통을 정리하여 침구학을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26]. 한편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은 갈홍(葛洪)이 242년에 지은 책으로 구급의료에 사용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침구법을 소개하고 있다[27]. 진·한시대 및 양진 남북조 시대의 저작에 관해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ocuments about Acupuncture Medicine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Jin,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제목	저자	연도	특징
황제내경(黃帝內經)	미상. 다수의 저작으로 추정	전국-진한시대	침구 이론과 임상 바탕이 되는 책
난경(難經)	편작(扁鵲)으로 추정	동한(東漢)이전	침구학 이론을 체계화
황제침구하마경(黃帝鍼灸蝦蟆經)	미상	미상	경락 분포, 침에 대한 금기 도해(圖解)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	장중경(張仲景)	150-210	한나라 3백년 임상경험 총괄
맥경(脈經)	왕숙화(王叔和)	242	장부경락과 맥진 결합하여 침구의 변증론치 시도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	황보밀(皇甫謐)	259	혈자리 총수와 명칭을 확정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	갈홍(葛洪)	242	구급의료에 사용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침구법 소개

3.5 수·당(隋唐)시대(581-960)

남북조시대는 전란과 분열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방의 여러 민족들이 융합이 이루어지고 생산력의 발전으로 지역간 격차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지만 수양제(隋煬帝)의 대운하사업, 사치와 학정, 고구려 원정 등이 민심의 이반을 불러와 수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이세민(李世民)이 당나라를 세운다. 하지만 수당제국의 건설은 의학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가능하게 했다. 인쇄술의 발전, 천문 역법의 발달 등으로 의학서적이 유통되고 남북간에 의학적인 교류도 증가하면서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 시기는 침구임상의 발전기라고 평가받는다[14].

서기 610년 출간된 소원방(巢元方)의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은 각종 질병의 병인(病因), 병기(病機), 병변(病變) 등을 논한 책으로 110여 종의 질병에 대한 침구치료를 기술한 책으로 수나라 때의 의학발전상을 보여주는 책이다. 병인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책이다[28]. 명당구경(明堂灸經)은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혈자리 주치증과 뜬법을 논하였으며, 침구의 금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신집비급구경(新集備急灸經)은 당시 침구의사들의 치료법에 대한 것을 총결한 책으로, 구급치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구법도잔권(灸法圖殘卷)은 그림으로 도해한 침구치료 전문서이며, 점락삼십육황경(點烙三十六黃經)은 침구로 황달을 치료한 전문서적이다.

한편, 680년 간행된 손사막(孫思邈)의 천금요방(千金要方)과 천금익방(千金翼方)은 당(唐)나라 시대 이전의 의학을 총결했을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의 80년간의 임상 경험을 결합하여 논술한 책이다[29]. 고대 명당도(明堂圖)를 고정(考訂), 경외기혈(經外奇穴)의 보충, 아시혈(阿是穴)의 개념 정의, 동신촌법(同身寸法), 침구약(鍼灸藥)

세가지의 종합적인 운용 등을 논하고 있다. 이밖에도 657년 간행된 소경(蘇敬)의 각기구방(脚氣灸方)은 각기(脚氣)에 대한 침구치료 전문서이며, 최지제(崔知悌)의 골증병구방(骨蒸病灸方)은 결핵성 질병의 침구치료 전문서이며, 왕도(王勣)의 외대비요(外臺祕要)는 자신의 치료경험을 총결하고 혈자리별로 주치증을 첨가한 책이다[30]. 수·당시대 저작에 관해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3.6 송·금·원(宋金元)시대(960-1368)

당나라가 망하고 조광윤(趙匡胤)이 세운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경제, 문화, 학술 등 전반에 걸쳐 가장 발전된 시기로 평가 받는다. 이 시기에 태동한 신유학(新儒學)이 중국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금원시대를 거치면서, 의학적으로도 운기학설(運氣學說), 상한론(傷寒論) 연구가 진전되고 수많은 독창적인 의학적 견해가 발표되는 등 송금원시대는 침뜸의학의 황금기를 이룬 시기로 평가 받는다. 전란으로 기아와 질병이 만연된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의학자로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라고 불리던 유완소(劉完素), 장종정(張從正), 이동원(李東垣), 주단계(朱丹溪)가 있다[13].

침구 관련 서적으로 1026년 간행된 왕유일(王維一)의 동인수혈침구도경(銅人脈血鍼灸圖經)은 십이경맥과 경혈의 그림이 기재되어 있고, 경맥의 순행부위와 주향(走向), 주병(主病) 및 소속 경혈의 위치 및 침구의 금기사항, 십이경맥의 기혈다소(氣血多少) 등을 논한 책으로 시험용, 교육용 저서로서 의학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했다[31]. 작자 미상의 동인침구경(銅人鍼灸經)은 12개 인형도(人形圖)를 그려 임상에 활용하게 한 책이다.

한편, 1111년부터 1117년 사이에 간행된 성제총록(聖

Table 2. Documents about Acupuncture Medicine in the Sui and Tang Dynasties

제목	저자	연도	특징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소원방(巢元方)	610	최초 병인(病因) 기록, 110여 종 질병 침치료 기술
명당구경(明堂灸經)	미상	미상	혈자리 주치증과 뜬법
신집비급구경(新集備急灸經)	미상	미상	당시 침구의사들의 치료법 총결, 구급치료
구법도잔권(灸法圖殘卷)	미상	미상	그림으로 도해한 침구치료 전문서
점락삼십육황경(點烙三十六黃經)	미상	미상	침구로 황달 치료 전문서
천금요방(千金要方), 천금익방(千金翼方)	손사막(孫思邈)	680	당(唐) 이전 의학 총결 및 저자 임상경험 결합
각기구방(脚氣灸方)	소경(蘇敬)	657	침구로 각기(脚氣)치료 전문서
골증병구방(骨蒸病灸方)	최지제(崔知悌)	685	결핵성 질병의 침구치료 전문서
외대비요(外臺祕要)	왕도(王勣)	752	치료경험 총결하여 혈자리별 주치증 첨가

濟總錄)은 송나라 정부의 주도로 편찬된 책이다. 송대 이전의 의학을 총결한 침구의학의 대전(大全)으로, 역대의 의서들을 채집하고 여기에 민간에서 모은 처방까지를 총괄하여 편찬한 것이다[32]. 두재(資材)가 지은 편작심서(扁鵲心書)는 변증론치를 증시하여 각자의 병증에 따른 다른 치료법을 주장하였다. 왕집중(王執中)의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1165)은 소화기계통인 비위(脾胃)를 증시하여, 자침을 하면 위기(胃氣)에 의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3]. 염명광(閻明廣)이 지은 자오유주침경(子午流注鍼經)은 자오유주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이며, 홀태필열(忽泰必烈)의 금난순경취혈도해(金蘭循經取穴圖解)는 십사경락(十四經絡)의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의서이다.

두계방(竇桂芳)의 침구사서(鍼灸四書)는 자오유주침경 등 4권의 책을 총결하여 새로 편찬한 것으로, 침구에 대한 금기사항도 담고 있다. 왕국서(王國瑞)가 지은 편작신응침구옥룡경(扁鵲神應鍼灸玉龍經)은 침구가결(鍼灸歌訣)을 다수 수록한 책이다. 활수(滑壽)의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는 14경맥(經脈)의 순환, 경혈의 회합(會合)에 대해 기록한 책이며, 호원경(胡元慶)의 용저신비구경(癰疽神祕灸經)은 14경맥의 순행 및 주요 경혈 그리고 용저에 대한 침구 치료를 논한 책이다[28]. 송·금·원시대의 저작에 관

해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3.7 명(明)시대(1368~1644)

원나라가 망하고 주원장(朱元璋)이 명나라를 건국했다. 이 시기에는 의학분야에서는 유의(儒醫)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유가에서 십삼경(十三經)을 경전으로 떠받드는 것처럼, 자신들도 황제내경, 상한잡병론 등을 경전으로 받들면서 이를 근거로 저마다의 학설을 주장하였다. 송나라 이래로 학파간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가 열리고 금원사대가가 나왔듯이 명나라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각 학파간의 논쟁이 극렬하게 전개되면서 이 과정에서 의학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시기였다[14].

1406년 간행된 주숙(朱橚)의 보제방(普濟方)은 침구학의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책으로서, 경맥의 유주와 수혈의 유주를 매우 중시한 책이다 [32,34]. 고무(高武)의 침구취영(鍼灸聚英)은 병정(病情)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자오유주 침법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각종 보사법을 비판하였다[35]. 이천(李橧)은 의학입문(醫學入門)에서 정확한 취혈과 수기법(手技法), 원기(元氣), 자오유주학설 등을 증시하였다[36]. 양계주(楊繼洲)

Table 3. Documents about Acupuncture Medicine in the Song and Jin and Yuan Dynasties

제목	저자	연도	특징
동인수혈침구도경(銅人驗血鍼灸圖經)	왕유일(王維一)	1026	시험용, 교육용 저서. 의학교육 활성화에 기여
동인침구경(銅人鍼灸經)	미상	미상	12개 인형도(人形圖)그려 입상에 활용
성제총록(聖濟總錄)	정부 편찬	1111-17	송대 의학 총결한 침구의학 대전
편작심서(扁鵲心書)	두재(資材)	1146	변증론치 증시, 병증에 따른 다른 치료법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	왕집중(王執中)	1165	비위(脾胃)증시, 위기(胃氣)의한 침치료 주장
자오유주침경(子午流注鍼經)	염명광(閻明廣)	1153	자오유주(子午流注)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
금난순경취혈도해(金蘭循經取穴圖解)	홀태필열(忽泰必烈)	1303	십사경락(十四經絡) 명칭 최초 사용
침구사서(鍼灸四書)	두계방(竇桂芳)	1311	자오유주침경 등 4권책 총결, 침구 금기 논함
편작신응침구옥룡경(扁鵲神應鍼灸玉龍經)	왕국서(王國瑞)	1329	침구가결(鍼灸歌訣) 다수 수록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활수(滑壽)	1341	14경맥(經脈)의 순환, 경혈의 회합(會合) 논함
용저신비구경(癰疽神祕灸經)	호원경(胡元慶)	1354	14경맥 순행 및 주요 경혈, 용저 침구 치료

Table 4. Documents about Acupuncture Medicine in the Ming Dynasty

제목	저자	연도	특징
보제방(普濟方)	주숙(朱橚)	1406	침구학 자료 광범위 수집, 경맥유주 및 수혈유주 증시
침구취영(鍼灸聚英)	고무(高武)	1529	자오유주 침법 극대화 방법, 각종 보사법 비판
의학입문(醫學入門)	이천(李橧)	1575	정확한 취혈, 수기법(手技法), 원기(元氣), 자오유주학설 증시
침구대성(鍼灸大成)	양계주(楊繼洲)	1601	명대 이전 침구이론과 임상경험 총결. 경락이론과 변증론치 증시
유경도익(類經圖翼)	장개빈(張介賓)	1624	도해 형식으로 운기학설(運氣學說)을, 장부 중심으로 경락을 논함

의 침구대성(鍼灸大成)은 명대 이전의 침구이론과 임상경험을 총결한 책으로, 경락이론과 변증론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37]. 장개빈(張介賓)은 유경도익(類經圖翼)을 지어 도해 형식으로 운기학설(運氣學說)을 설명했으며, 장부를 중심으로 경락을 논하였다[38]. 명시대의 저작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3.8 청(淸)시대(1644-1911)

명나라가 조선에서 일어나 임진왜란 때문에 북방 여진족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성장한 만주의 누루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웠다. 청나라는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한다. 청나라시대의 의학은 금원사대가로 대표되는 송금원시대 및 명나라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온병학(溫病學)의 발전이다. 청나라시대 특히 발달한 고증학(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원명이래의 의학을 계승하고 상한(傷寒)을 중시하는 이들은 온역(瘟疫)을 장중경의 상한잡병론의 관점을 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온병학자들은 상한과 온역은 완전히 다른 질병으로 다른 치료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격론했다. 이러한 논쟁은 상한론의 전통을 잇는 고방파(古方派)와 온병학의 전통을 잇는 시방파(時方派)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전체적으로 청나라시대는 참뚝의학의 성숙기로 평가받는다[10].

청대에 가장 대표적인 침구서적은 1742년에 나온 의종금감(醫宗金鑑)이다. 이 책은 건륭연간에 청나라 정부의 주관으로 편찬되었는데, 청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경맥, 경혈을 중시하고, 침구의 치료범위와 효과를 확대하였으며, 취혈을 간편화하였다[39]. 이학천(李學川)의 침구봉원(鍼灸逢原)은 독창적인 견해는 없지만, 황제내경 등의 이론을 잘 정리하였다[40]. 진혜주(陳惠疇)가 지은 경락도고(經絡圖考)는 경락, 경혈, 골도(骨度)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고증하였다[41]. 유종형(劉鍾衡)의 중서회참동인도설(中西匯參銅人圖說)은 서양의 해부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장부경락 등을 다시 그렸다[42]. 특히 서양의학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그 성과가 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왕청임(王淸任)이 지은 의림개작(醫林改錯)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서양 해부학의 지식을 해석한 책이며[43,44], 당종해(唐宗海)가 지은 중서회통의경정의(中西匯通醫經精義)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서양의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을 흡수하여 서술한 책이다[45]. 청시대의 저작에 관해서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3.9 근현대(1911년 이후)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서구에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1911년 손준산이 이끈 신해혁명으로 청조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원세개가이끄는 북양군벌정부, 중국 공산당의 설립(1921), 장개석에 의한 남경의 국민당정부 설립과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등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하였다. 하지만 많은 의학자들이 중국 의학을 보존하고 중서의(中西醫) 회통을 위해서 노력하여 중국 의학은 전멸의 위기는 넘겼지만, 북양군벌정부와 국민당 집권기의 각종 의료정책이 중국의학의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의학은 암흑기를 맞았다[10].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중국 전통의학의 보호 육성하고 중서의가 서로 단결하여 보건사업에 매진하자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새로운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56년 북경, 상해, 광주, 성도 등 중국 전역에 중의약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1955년에는 의학 연구기관인 중의학과학원과 중의연구원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침구학 마취, 백내장의 침구치료 등 중서의 결합연구가 활발해지고, 1980년 이후에는 중서의 결합을 표방하는 병원과 연구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중국에서 침구학을 위시한 중국 전통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중국 정부차원에서 세계 각국으로 중의학의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의 학이 이론 및 임상, 그리고 교육 등 다방면에서 융성기를 구가하고 있다[13,14].

Table 5. Documents about Acupuncture Medicine in the Qing Dynasty

제목	저자	연도	특징
의종금감(醫宗金鑑)	정부편찬	1742	청대 가장 큰 영향 끼친. 경맥, 경혈중시, 취혈 간편화
침구봉원(鍼灸逢原)	이학천(李學川)	1822	독창적인 견해 없으나, 내경 등의 이론 잘 정리
경락도고(經絡圖考)	진혜주(陳惠疇)	1838	경락, 경혈, 골도(骨度)에 대한 기록 수집 및 고증
중서회참동인도설(中西匯參銅人圖說)	유종형(劉鍾衡)	1899	서양의 해부학적 지식 응용하여 장부경락 등을 그림
의림개작(醫林改錯)	왕청임(王淸任)	1830	한의학 관점에서 서양 해부학 지식을 해석
중서회통의경정의(中西匯通醫經精義)	당종해(唐宗海)	1892	한의학 관점에서 서양 해부학, 생리학 지식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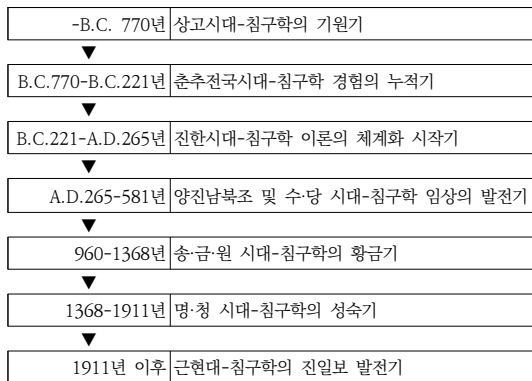


Fig. 1. Overview of the flow of origin and history of acupuncture medicine

4. 결론

금속제의 침으로 체표를 자극하여 치료하는 침구학은 상고시대 중국에서 발원하였다. 하왕조와 상왕조, 서주시대 유적으로는 침구의 기원을 보여주는 뼈나 돌로 만든 침이 발견되었고, 갑골문에는 의학관련 기록이 남아 있고, 서주시대에는 의정제도가 확립되어 분과별로 담당의관이 따로 있었다. 춘추전국시대는 침구경험이 누적된 시기로 마왕퇴 한묘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침구학과 관련된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 진한시대는 침구학의 체계가 형성 발전하면서 침구학술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이다. 특히 후대에 경전처럼 만들어진 황제내경, 난경 등의 주요한 저작들이 이 시기에 출판되었다. 특히 황제내경에는 이전의 뼈나 돌로 만든 골침, 펄석이 아닌 금속제로 만든 침의 모양과 용도를 자세히 기술하여 초기 침구술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양진남북조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시기로 전란이 연속되고 질병이 만연하면서 역설적으로 명의도 많이 나타나고 의술도 발전하였다. 맥경이나 침구잡을경 같은 저작이 나왔다. 수당시대는 인쇄술이나 천문역법 등이 발달하는 등 의학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침구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다. 송·금·원시대는 경제 문화 학술 전반이 융성하면서 의학분야 수많은 독창적인 견해들이 발표되는 등 침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황금기라고 볼 수 있다. 명나라시대에는 송금원시대 이래로 내려온 백가쟁명의 경향이 지속되면서 침구의학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시기였다.

청나라시대는 상한론파와 금원사대가 학술 등, 이전시

대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새로이 온병학이 발전하면서 침뜸의학이 한층 성숙해진 시기였다고 평가받는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북양군벌정부와 국민당 시기 압박을 받아 다소 침체됐던 침구학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적극적인 중국 전통의학 지원에 힘입어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상고시대부터 중국 침구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신들의 왕래, 임진왜란 당시의 전란 중에도 의학적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암침법 등 조선 특유의 독창적인 침구학도 선을 보였다[46].

중국에서 발원하여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침구학은 구미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면서 현대 서양의학 혹은 자국의 전통의학과 소통하면서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가별로 많은 차이는 있지만, 침구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여기서 배출된 침구 전문가들이 그 나라의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보험 급여가 가능한 나라도 있다.

침구학은 대체의학 혹은 보완대체의학으로 불리고 있다. 동양의학의 기반이 되는 침구학은 서양의학과는 그 틀과 진단 및 치료에 있어 방향성이 다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침구학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근거중심 의학으로서 정립되고 있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침구학에 대한 연구결과 중 대부분은 통증완화에 관한 것으로 차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증에 관한 효과크기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Seongbosa, 2001, p.327
- [2] J. Filshie, A. White, M. Cummings, Medical Acupuncture: A Western Scientific Approach, Hanmiuihak, 2019, pp.3-18
- [3] S. Jeon, Clinical Applications and Practice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angukuihaksa, 2009, pp.91-92
- [4] M. S. Corbett, S. J. C. Rice, V. Madurasinghe, R. Slack, D. A. Fayter *et al.*, "Acupuncture and other physical treatments for the relief of pain due to osteoarthritis of the knee: network meta-analysis", *Osteoarthritis and Cartilage*, Vol.21, No.9, pp.1290-1298, Sep. 2013. DOI: <https://doi.org/10.1016/j.joca.2013.05.007>
- [5] A. J. Vickers, A. M. Cronin, A. C. Maschino, G. Lewith, H. MacPherson *et al.*, "Acupuncture for chronic 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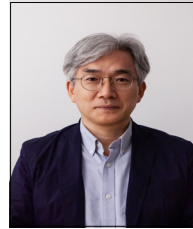
- individual patient data meta-analysis", Arch. Intern. Med. Vol.172, No.19, pp.1444-1453, Oct. 2012.
DOI: <https://doi.org/10.1001/archinternmed.2012.3654>
- [6] G. S. Gu, Oriental Medicine Meets Western Medicine, Seoul Gunja Publishing House, 2010, pp.169
- [7] S. W. Choi, M. S. Shin, S. C. Kim, Peripheral Acupuncture Medicine. Seoul, Gaonhae Media, 2017, pp.30-43
- [8] L. B. Synovitz, K. L. Lars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 health professionals: A Holistic Approach to Consumer Health. Jones & Bartlett Learning, 2013, pp.67-76
- [9] S. C. Kim, M. S. Shin, S. W. Choi, Acupuncture Medicine for Musculoskeletal System. Seoul Gaonhae Media, 2021, pp.3-42
- [10] J. D. Lee, N. M. Kim, History of Chinese Acupuncture Medicine, Jibmundang, 1997, p.21
- [11] Chenxinong, Zhongguo Zhenjiuxue, Beijing, Renminweisheng Chubanshe, 1986, pp.1-10
- [12] Gaolishan, Zhenjiu xinwu. Beijing, xueyuan chubanshe, 2003. pp.72-73
- [13] Se-Yeo Kwak, History of Chinese Acupuncture, Seoul, Shinsung, 1997, p.7
- [14] Kim Ki-wook, etc., Lecture Chinese Medicine, Goyang, Gyeonggi, Daeseong, 2006 pp.25-37
- [15] Guoshiyu, Zhongguo Zhenjiushi, Tianjin, Tianjinkexuejishuchubanshe, 1989, p.7
- [16] E. J. Lee, J. Y. Lee, I. S. Shin, H. Y. Kim, B. H. Lee, "A Study on the Young Chu(靈樞) of the Huang Di Nei Jing (黃帝內經)",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s*, Vol.36, No.4, pp.192-196, Dec. 2011.
- [17] S. C. Sohn, G. S. Kim, J. H. Yoon, "Research of <Huangdimingtangjing (黃帝明堂經)> with a treatise",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Vol.20, No.2, pp.195-203, May. 2003.
- [18] Zhaungyumin, Zhongguo Zhenjiu Fazhanshi, Taiwan, Taipei, Yantaigongsi, 1978, pp.59-60
- [19] Y. G. Park, "The Philosophical Nature of Mawangdui Han mu boshu Zhouyi-A Study on the Representedness of Xici zhuan-",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2, No.40, pp.21-46, Apr. 2005.
- [20] B. Z. Ju, H. C. Kim, "Investigation of Chronomedicine and Health Preserving in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28, No.2, pp.61-66, May. 2015.
DOI: <http://dx.doi.org/10.14369/skmc.2015.28.2.061>
- [21] Lu shou kang, Zhongguo Zhenjiu jishu fangfa, Beijing, Renminweisheng Chubanshe, 2013, pp.491-492
- [22] C. W. Ahn, Y. K. Min, C. B. Ahn, K. J. Jang, C. H. Kim, C. H. Song, H. M. Yoon, "A study on Five Su-point(五輸穴) in Yingshu(靈樞), Sumun(素問) and Najing(難經)", *Journal of Pharmacopuncture*, Vol.11, No.1, pp.189-199, Mar. 2008.
DOI: <https://doi.org/10.3831/KPL.2008.11.1.189>
- [23] Nakki Seong, Interpretation of the 81 Nanjing(難經), Seoul, Gmunsa, 1990. pp.120-127
- [24] Sanjeonguangyun, Daejeonmuneeon, Doseol Dongyangyuihak, Seoul, Nonjang, 1992, pp.26-29
- [25] W.S. Hong, History of Chinese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7, pp.116-118
- [26] J. H. Kim, K. W. Kim, H. G. Park, "A Study of Acupunctur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ugapelgyeong(鍼灸甲乙經)",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22, No.1, pp.35-59, Feb. 2009.
- [27] W. S. Moon, E. H. Kim, B. W. Lee, "A Study of External Treatment History in Wei(魏) Dynasty and Jin (晉) Dynasty",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18, No.3, pp.70-80, Aug. 2005.
- [28] J. H. Kim,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Wulao(五勞)-Liuji(六極)-Qishang(七傷)",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32, No.2, pp.135-146, May. 2019.
DOI: <http://dx.doi.org/10.14369/jkmc.2019.32.2.135>
- [29] S. K. Park, "Comparative Study of Beijiqianjinyafang and Sunzhenrengianjinfang: Focused on the Third Chapter of Limb Diseases",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31, No.3, pp.108-116, Sep. 2014.
DOI: <https://doi.org/10.14406/acu.2014.021>
- [30] J. H. Ahn, "A Study on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Exterior-Interior Relationship Between the Heart and Small Intestine-Focusing on Prescriptions for Urine Disorder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33, No.3, pp.1-19, Aug. 2020.
DOI: <http://dx.doi.org/10.14369/jkmc.2020.33.3.001>
- [31] K. W. Kim, H. G. Park, "A Study about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Dong-insuhyeolchimgudogyong(銅人腧穴鍼灸圖經)",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21, No.4, pp.41-60, Nov. 2008.
- [32] W. S. Cha, N. Kim, S. W. Ahn, D. R. Kim, "A Study on the Way of Organizing Contents of State Sponsored Medical Text in Ancient China",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30, No.2, pp.1-12, Nov. 2017.
DOI: <https://doi.org/10.15521/jkmh.2017.30.2.001>
- [33] S. G. Jung, D. M. Eom, "A Study of the Alignment of Meridian Points Found in the Zhenjiuzishengjing (鍼灸資生經) and the Shisingtahui (十四經發揮)",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32, No.1, pp.43-61, May. 2019.
DOI: <https://doi.org/10.15521/jkmh.2019.32.1.043>
- [34] M. S. Ji, S. W. Ahn, C. Y. Yoon, "Study on the Life of Jusuk(朱橐) and His Writings",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23, No.3, pp.1-11, May. 2010.
- [35] K. W. Kim, H. G. Park, "A Study of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ujeolyochiyung(鍼灸節要聚英)",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Vol.25, No.5, pp.77-87, Oct. 2008

- [36] H. J. Jo, "The Development History Of Disease Bi(痞病) Reflected In Euhakibmun(醫學入門)",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Vol.24, No.5, pp.131-145, Sep. 2011.
DOI: <https://doi.org/10.14369/skmc.2011.24.5.131>
- [37] Y. G. Jeon, J. W. Lee, S. Kim, "A Study of Acupuncture Contraindications in Zhenjiudacheng",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35, No.2, pp.105-115, June. 2018.
DOI: <https://doi.org/10.14406/acu.2018.012>
- [38] D. J. Kim,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Medicine of Zhang Jie-bin(張介賓) Focused on the view of the Yin-Yang(陰陽)", *Yongsa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Studies*, Vol.5, pp.199-220, May. 2010.
DOI: <http://dx.doi.org/10.22863/eacs.2010.5..199>
- [39] S. W. Ryu, "A Study for Chief Virtue oi-gwan(外關) and jog-im-eup(足臨泣) of Eight Confluent Acupoints(八脈交會穴)", *Korean Thought and Culture*, Vol.77, pp.519-546, Mar. 2015.
- [40] I. K. Jung, H. Lee, C. S. Yin, "History of Acupuncture Medicine Witnessed the Setting of Modern Set of 361 Acupoints in the Classical Title of 19th Century, 'Exploring the Origin of Acupuncture Medicine(針灸逢源)'", *Journal of TMJ Balancing Medicine*, Vol.9 No.1, pp.1-3, Dec. 2019.
- [41] Gaoxinsu, Huling, *Zhongguo Zhenjiuxue Cidian*, Nanjing, Jiangsukexuejishuchubabshe, 2010, p.221
- [42] Lijingwei, *Zhongyidacidian*, Beijing, Renminweishengchubanshe, 2004, p.279
- [43] K. H. Sihm, "The Anatomical Revolution and the Transition of Anatomical Conception in Late Imperial China",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Vol.21, No.1, pp.67-100, Apr. 2012.
- [44] Zhang Enqin, *Basic Theory of TCM (II)*. Shanghai, China. Publishing House of Shangha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0 pp.18-19
- [45] S. S. Kim, "The unstable coexistence between Chinese/Western and Tradition/Modernity: Tangzonghai(唐宗海) and Zhongxi huitong yijing jingyi (中西匯通醫經精義)", *Korean Journal of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 Vol.6, pp.59-93, Oct. 2020.
DOI: <https://doi.org/10.32365/KASHM.2020.6.3>
- [46] Heo Jun, Donguibogam, Hadong, Donguibogam Publishing House, 2010, pp.2273-2372

김 진 국(Jin-Kook Kim)

[정회원]



- 1989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 (문학사)
- 2000년 7월 :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Chinese Medicine (Bachelor of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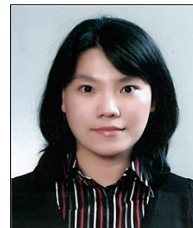
- 2005년 6월 : Hubei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Acupuncture Medicine (Master of Medicine)
- 2011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박사과정)
- 2020년 7월 ~ 현재 : 고려대학교 AHAP 주임교수

<관심분야>

침구학, 한의학, 대체의학

이 소 영(So-Young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생활과학학사)
- 2004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조리및주거학전공 (생활과학석사)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식품치료전공 (대체의학석사)

- 2020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대체의학과 (대체의학박사)
- 2021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매체테라피전공 외래교수

<관심분야>

임상영양, 기능성식품, 식문화

김 애 정(Ae-Jung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정학 학사)
- 198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식품영양학과
(가정학 석사)
- 199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 1993년 3월 ~ 2011년 8월 : 혜전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임상영양, 기능성식품, 식문화